



### 매체포교 이정표 다시 세운다



#### 축하 휘호

弘益人間(홍익인간)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 공생사회 만들기에 기여

백창기(조계종 중앙신도회장)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신행과 문화활동을 비롯해 정법의 대변자로서 문서포교, 인터넷 포교 등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불교의 사회 참여와 영향력 증대를 위한 노력과 불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원만하게 대변하고 있고, 서로 공존·공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일반재가자들의 요구와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해 다양한 포교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현대불교신문이 선두에서 서서, 불교대중과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울림은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전국 불자들의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돼 불교정토 실현의 파수꾼으로 대원력을 한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현대불교신문이 되기를 당부 드리며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 불국토 건설위해 정진을

홍기삼(동국대학교 총장)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표방한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10년 동안 2천만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올바른 법과 자비의 뜻을 전해주고 지혜와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수록 부처님의 가르침과 상생의 도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경의 내용을 수지 혹은 사구계 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에게 말하여주면, 그 복덕은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크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혜명이 무명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밝혀주시어 현대불교신문이 세상의 무지를 걷어내고 불국토를 건설하는데 더욱 정진하기를 서원합니다.



백창기



홍기삼



이용희



박원순

### 신행풍토 조성 노력 돋보여

이용희(국회 정국회장)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요즘,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불자들의 관심을 소상히 밝혀주고 불교의 생활화를 위한 이슈 발굴이라는 공공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체의 중요성도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불교 발전은 각 불교 언론인들이 불자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정과 비판을 제시하여 이를 발전적으로 이끄는 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현대불교신문은 이러한 부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 왔으며, 불교계의 소식을 불자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대안을 찾도록 길을 제시하는 일에 노력해 온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현대불교신문은 이러한 부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 왔으며, 불교계의 소식을 불자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대안을 찾도록 길을 제시하는 일에 노력해 온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행수행풍토 조성에도 앞장서며,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신문, 불교계의 어두운 곳은 밝게 비추고 밝은 곳은 널리 알리며 어떤 곳든 어루만지는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 첫 출발의 다짐 잊지말길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이사장)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아름다운재단 모든 회원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달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으며,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각박한 세상속에서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이 제공한 아름다운 기사들은 사회에 청량제 구실을 해왔습니다.

이제 10번째 생일을 맞았으니 그동안 쌓아온 현대불교만의 노하우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금 처음 출발할 때의 다짐을 잊지 말고 신발을 다시 한번 때는 자세로 바른 여운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현대불교신문의 열 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 자비행 현양 언제나 앞장

박광서(참어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이래로 교계 언론의 동반된 발전을 이끌었고, 특히 재가불자들의 신행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괄목할 만한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공동체 등 생활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불교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큰 책무를 마다하지 않는 신문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더불어 불교교단을 맑고 따뜻하게 가꾸어 가고, 이웃과 사회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자비행을 현양하는데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는 신문으로 독자들과 가슴에 살아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거듭 창간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박광서



#### 축화

'相' 눈에 보이는 형태는 '상' 이 아니다. 단지 징검다리이며, 진실은 보이지 않는 건너편에 있다. 고암 정병례(전각가)

### 중심 잡아주는 도반으로

허선희('현대불교' 영구독자)



허선희

현대불교신문이 그동안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깨우침이라도, 그것을 작게 보지 않고 알차게 엮어서 '마음 내는' 수행의 소재로 삼아, 지혜를 밝혀가는 길이 되어 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혼까지 돌 아님 하나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불도들에게는 현대불교신문이 있어 생활의 언저리가 아닌 중심에서 꼭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가르침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젊은 불심 가득담는 신문

정상욱(대한불교청년회장)



정상욱

10년 동안 현대불교신문이 불교 발전에 기여한 바는 실로 다대합니다. 각 지역 불교 지도자에 대한 소개 및 종단의 각 종 소식 전달, 불교 문화예술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특히 청년 포교활동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등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학생, 청년, 군불교 포교에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불교가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하는 불향(佛香) 그윽한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 사회통합 겨레화합 선도

노옥섭(공무원불자연합회장)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10돌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원 모두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대불교의 뜨거운 관심이 우리 연합회의 오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늘 정론의 묵묵함으로 깨우쳐주시고, 지혜의 등불로서 세상의 무명을 밝혀온 위업을 마음에 새깁니다.

근간 우리의 주변은 매사에 편을 가르고, 내 생각만이 옳으며 내 주장은 끝까지 관철되어야 한다는 아집으로 갈등이 악순환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혜로운 비판과 견제로써 조화와 균형을 이룬 가운데 만물이 하나로 통합하여 소통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일깨우고 지켜내는 이 시대의 엄정한 촉비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큰 걸음으로 부처님의 법 전파와 기록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겨레의 화합, 그리고 나라의 번영을 달성하는 데에도 선도자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간의 교계 및 사회적 기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옥섭

### 지혜 전하는 눈·입·귀 역할

윤용숙(여성문제연구회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의 세월동안 현대불교는 유익한 신행기사를 통한 교계발전과 청소년 포교사업 등에 매진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불교계의 여성 지위문제, 비구니 위상문제에 가장 역할을 두고 보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앞으로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교계의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항상 독자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달해주는 눈과 입과 귀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현대불교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의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윤용숙

### 다도문화 선양 남다른 노력

김의정(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의정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한국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은 산사 스님들의 수행을 대중과 함께 하는 수행생활로, 옛 건축으로만 여겨왔던 사원 건축과 미술품을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한국불교의 정신문화인 다도(茶道) 수행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에서 올바른 우리 다도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 모처럼 일고 있는 다도 열풍을 잇는 동시에, 일본과 중국의 다법(茶法)이 우리 사찰에서 행해지지 않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자가 있는 곳 어디서나...

강지혜(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강지혜

대불련 법우들이 있는 학교 동아리 방에서, 인터넷에서, 불교정보의 큰 우체통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정보센터와 출판물 통한 전파의 역할, 정보화시대에서 불자들의 힘을 모아 아할 시기에 현대불교 신문은 매우 중요한 핵심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미래에도 불자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하는 신문으로 더욱 거듭나시기를 기원합니다.